

# 북한이탈주민 시의 ‘그림자(Shadow)’ 형상화 문제\*

- 장진성의 시집과 수기를 중심으로 -

박덕규\*\* · 김지훈\*\*\*

|| 차례 ||

- I. 개성화 과정으로서의 시창작
- II. 그림자(Shadow)의 시적 형상화
- III. 문학적 형상화 문제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 시의 그림자 형상화 문제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예술문화 활동이 눈에 띈다. 드라마와 영화 같은 영상 장르의 경우 작품의 주인공이나 소재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문학·무용·음악·미술·공연 등의 순수 예술 장르에서는 전자와 더불어 행위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매체적 특성으로 볼 때, 드라마나 영화, 토크쇼 프로그램 같은 경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문학을 비롯한 순수 예술 분야는 전자에 비해 직접 접할 기회가 적은 편이다.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시집이나 수필을 비롯한 저작물이 활발하게 유통된 시점은 2000년대 이후다. I 장에서는 개성화 과정으로서의 시창작이라는 제목으로 2000년 이후 출판된 북한이탈주민의 시집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들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포착된 정서는 북한이탈로 인해 발생한 슬픔과 분노, 그리움과 희망이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411-J03301)

\*\*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연구전담조교수

특히, 시집 두 권을 비롯해 수필까지 출판한 장진성의 텍스트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진 슬픔과 분노의 정서가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II장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그림자의 시적 형상화를 주제로 하여, 소주제 ‘탈북체험의 그림자 형상화 문제’와 ‘정착 의지로서 그림자 형상화 문제’에 대해 장진성의 작품 중 서사성이 강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그림자 즉, 슬픔과 분노의 표현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간의 정서를 언어로 빚어낸 시에서 ‘그림자의 형상화 문제’는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다. 왜냐하면 본인을 비롯한 한 집단이 지닌 상처의 전모를 전면적으로 또 직설적으로 드러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는 상징과 은유 등의 기법으로 에둘러 말하기 즉 직설적 말하기에 비해 안전한 방법으로 자기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장진성의 시에 나타난 슬픔과 분노는 전자의 기법적 특성을 지니면서 내용적 측면에서는 그러한 정서를 초월하는 철학적 주제를 담고 있었다. 일면 시가 가진 함축성은 독자의 상상력을 증폭시키는 기능도 하지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서사의 인과관계를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러한 점은 연대기적 순서로 집필된 그의 수필을 통해 내용이 보완되었다. III장에서는 문학적 형상화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들 또한 자기실현 즉 개성화의 관점에서 ‘그림자’를 직시하고 표현하고 있었으며 이는 북한이탈이라는 특이성을 공통점으로 지니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창작되고 출판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문학성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것은 개성화 과정으로서의 시창작이 그들의 실제 삶과 닮아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예측한다.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한 집단적 트라우마는 잊혀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속의 그림자는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 끊임 없이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그들의 작품이 온전한 정착으로서의 의지와 희망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하는 동시에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가적 과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원한다.

주제어 : 북한이탈주민, 그림자, 탈북체험, 정착 의지, 개성화(자기실현)

## I. ‘개성화 과정’으로서의 시창작

인간은 누구나 갈등 속에 살아간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분석심리학의 관점에서 갈등은 무의식<sup>1)</sup> 속에 잠

재되어 있는 '그림자'<sup>2)</sup>로 대변된다. 그림자를 응시하고 직시하고 변화시키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술활동이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리비도 개념을 통해 성적인 것에 천착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한 반면 융은 이것을 정신적 에너지로서 예술적 정신활동으로 승화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술적 정신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나 지향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실현(自己實現, self-actualization)<sup>3)</sup>'이다. 이것을 융은 '개성화, 개성화 과정(個性化過程, individuationsprozess)'이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더불어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적극적 상상(명상)을 제시한 바 있다. '적극적 상상'이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의식화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정서적 언어를 매개로 하는 시창작 또한 무의식의 의

1) “무의식은 의식과는 다른 우리 정신의 작동 양식으로 의식과는 떨어진 곳에 우리 과거의 어떤 삽화들을 보존한다. 우리는 그 과거를 다시 보고 싶지 않지만 그 과거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환영처럼 알아볼 수 없는 어떤 다른 형태로 언제라도 모습을 드러낼 채비가 되어 있다. 이 마지막 명제는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즉 억압된 것은 항구적으로 회구를 모색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출현한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변장을 하고 돌아온다는 것이다. 억압된 것은 최초의 자기 모습을 우리에게 결코 다시 보여주지 않는다. 기껏해야 그에 대한 '표상'을 제공해줄 뿐이다.” 장 벨망-노엘(최애영 외 옮김), 『정신분석의 개념들』, 『문학 텍스트의 정신분석』, 東文選, 2001, p.12.

2) 그림자는 의식의 바로 뒷면에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내용으로 열등한 인격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림자는 본래부터 그렇게 악하고 부정적이고 열등한 것이 아니라 그늘에 가려 있어서, 다시 말해서 무의식 속에 버려져 있어 분화될 기회를 잃었을 뿐이고, 그것이 의식되어 햇빛을 보는 순간, 그 내용들은 곧 창조적이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림자의 부정적 측면은 대개 상대적인 것이다.

3) 융 분석심리학에서 '개성화(個性化)'는 '자기실현'과 같은 의미이다. 융은 그의 저작에서 '자기실현'이라는 용어보다 '개성화'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융의 연구 취지에 따라 '개성화'라는 용어로 통일을 했다.

식화 작업의 관점에서 적극적 상상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논의될 주제는 북한이탈주민<sup>4)</sup>의 시에 나타난 ‘그림자의 형상화 방법’이다. 이것은 곧, 북한이탈주민의 갈등 양상을 심리·정서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 북한이탈주민의 시에서 그림자 형상화 문제는 크게 내용적 측면과 기법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그림자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으며 후자는 그림자를 형상화하는 기법과 연관성이 있음에 주목하여 논지를 전개하려 한다.

2013년 12월말 기준,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sup>5)</sup>는 26,122명이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그들과 관련된 예술문화 활동이 눈에 띈다. 드라마와 영화 같은 영상 장르의 경우 작품의 주인공이나 소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문학·무용·미술·음악 등의 순수 예술 장르에서는 작가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매체적 특성으로 볼 때 전자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지만 후자는 접할 기회가 적은 편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200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쓴 시집 특히, 장진성의 시집

4)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자를 의미한다. 탈북자라는 명칭이 귀순자, 귀순용사,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변한 데는 정치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의식의 변화에 따른 의미를 함의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공통적으로 탈북 중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정착 후에도 후유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그들이 쓴 시는 기본적 욕구 해결과 동시에 ‘정체성 찾기’의 과제를 선형적으로 지니며 새로운 문학담론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로서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5) 입국현황(‘13년12월말입국자기준) 단위(명)

구분	08	09	10	11	12	13 (잠정)	합계
남(명)	608	662	591	795	404	369	7,947
여(명)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8,175
합계(명)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26,122
여성비율(%)	78%	77%	75%	70%	72%	76%	70%

\* 자료출처: 통일부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 『김정일의 마지막 여자』 그리고 상호텍스트성을 지닌 수기 『시를 품고江을 넘다』를 중심으로 분석하려 한다. 그 이유로 첫째, 2000년대 이전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작품이 있긴 하지만 시집의 형태로 발간된 경우가 드물다. 둘째, 비슷한 시기이면서 근래에 발표된 시집과 수기를 대상으로 할 때 논의의 명증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논의에 앞서 북한이탈주민의 시집 현황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 1〉 200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 시집 현황

저자	탈북시기	제목 및 유형	출판년도	출판사	비고
탈북자 (김대호)	1994	벌거벗은 시의 고백(고백)	2003	리빙북스	현 식당 운영
김성민	1997	고향의 노래는 늘 슬픈가	2004	다시	현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옥애	2001	죽사발 소동(고발)	2005	삼우사	현 하나원 생활지도,상담 통일부 상임연구위원
장진성	2004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고백+고발)	2008	조갑제 닷컴	현 뉴포커스 대표
		김정일의 마지막 여자(고발)	2009	강남지 성사	
		시를 품고江을 넘다(수기) (고백+고발)	2011	조갑제 닷컴	

〈표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시집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 고발적 유형’의 시집, 나머지 하나는 ‘자기 고백적 유형’의 시집이 그것이다. 전자가 북한 체제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노와 슬픔의 정서를 표상화함으로써 자아 정체성 찾기를 시도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후자는 체제나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개인의 정체성을 철학적 주체로서 상징화하고 의미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양자 모두 탈북체험으로 인한 트라우마의 형상화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누드 사진을

포함한 시집 『벌거벗은 시의 고백』의 저자 김대호는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익명성과 상징성을 부각한 ‘탈북자’라는 필명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그의 프로필을 보면 확인되듯이 북한에서 사회적 위치와 그로 인한 위험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집에 밝힌 그의 이력은 1959년 4월 9일 함경남도 단천시 광천동 출생, 1984년 10월, 북한 5군단 25사에서 중대 사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핵개발부대로 소환되어 황해북도 평산지방에서 우리늄 생산공장 건설에 참가했다. 1985년 8월 5일, 제대하여 영변 핵단지 우리늄 생산공장에 배치되었으며 1987년 9월, 원자력 공업부 남천 화학연합기업소로 소환(황해북도 평산지방)되어 우리늄 폐기물처리 직장 1작업반장 겸 부분당 비서직에 있었다. 1989년 10월, 우리늄 폐기물처리 직장 부직장장(부사장) 겸 간부관리 당세 포비서, 1992년 6월, 710호(핵개발자금) 확보를 위한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외화벌이 상무겸 서해지구 수산 외화벌이 채취대 대장으로 활동, 1994년 4월, 북경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다.

시집 『고향의 노래는 늘 슬픈가』는 전 북한군 대위 출신 김성민의 시집으로 밝혀져 있는데, 실제로는 시관 유보중인 상태이다.

장시와 서사시가 특징인 시집 『죽사발 소동』의 저자 김옥에는 중국 지린성 장춘 출신으로 대학교수인 아버지를 따라 1964년 북한행, 남편과 두 아들을 두고 2001년 막내 아들만 데리고 북·중 국경을 넘었다.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장진성은 재북 당시 평양음악무용대학 졸업, 조선중앙방송위원회 TV총국 문예부 기자,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중앙당 통일전선부 101연락소에서 근무하다 2004년 탈북했다. 시집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번역 출판되었으며, 한국인 최초로 영국 옥스퍼드 워덤 컬리지 2012년 <렉스 워너상>을 수상했다. 본고는 그의 시집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2008)』를 중심으로 그와 상호텍스트성을

지닌 서사시집 『김정일의 마지막 여자(2009)』, 수기 『시를 품고 江을 건너다(2011)』를 함께 살펴보았다. 텍스트 분석에 앞서 시집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의 구성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표 2〉 장진성,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

구 분 (탈북 전/후)	주 제 어	편 수
쌀밥 찬가 (탈북 전)	밥, 밥알, 숟가락, 쥐기밥	10
우리는 이렇게 죽었다 (탈북 전)	사람, 시체, 죽음	12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다 (탈북 전)	가족, 삶	24
인권이 없는 곳에 구제미도 없다 (탈북 전)	구제미, 대용(代用)인간	11
탈북자, 우리는 먼저 온 미래 (탈북 후)	탈북, 탈북자, 미래	14

위에 제시된 시집은 극심한 기아 체험과 인간성 상실에 대한 슬픔과 분노의 정서가 표상화된 작품으로 총71편,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상으로는 탈북 전후를 중심으로 작품이 전개된다. 총 71편의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편수를 보유하고 있는 제3부(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다)에서는 자기고백적 시가 특징이다. 시의 전편에 흐르는 일차적 정서는 슬픔과 죄책감이다. 정서는 전이되는 특징이 있다. 대상으로부터 대상으로 전이되는 경우도 있고, 일차적 정서에서 이차적 정서로 전이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에 제시된 표는 서사시집 『김정일의 마지막 여자』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표 3〉 장진성, 『김정일의 마지막 여자』

장	절	내용	시간
1장 (첫 무대)	1절	김정일과 윤혜영 목란관에서 만남	현재
	2절	윤혜영과 김성진의 만남	과거
	3절	김정일의 사적 고뇌와 여성편력 고발	과거
		김정일이 윤혜영에게 고백	현재

2장 (단 한 사람)	1절	김성진에 대한 윤혜영의 추억, 회상	과거
		김정일이 보낸 부조리한 서약	현재
		윤혜영의 갈등	현재
	2절	김정일의 계획에 의한 김성진의 보천보약단 해임과 재입단	현재
	3절	보천보약단을 동행한 김정일의 승마행렬 중 윤혜영의 말이 비랑으로 떨어질 찰나, 김성진이 막아서서 구함	현재
		윤혜영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김성진에게 국기훈장 3급, 봉화진료소 치료 하달하는 김정일	현재
김정일의 가식적 행위에 대한 비판적 시선		현재	
3장 (생일선물)	1절	김성진에 대한 윤혜영의 그리움(현재)	현재
		윤혜영의 생일을 위해 백만 달러 다이아몬드와 통라도 경기장 대집단 공연을 준비한 김정일	현재
		24시간 외출을 허락받은 윤혜영	현재
	2절	김정일 특각 대기차로 집으로 이동하는 윤혜영	현재
		목란관과 대비되는 험벗고 가난한 거리 풍경을 목격하는 윤혜영	현재
	3절	윤혜영과 김성진의 재회	현재
		김성진이 직접 깎아 만든 나무뿔을 선물로 받은 윤혜영	현재
4장 (지워지지 않는 노을)	1절	다시 목란관 문수초대소로 이동하는 윤혜영	현재
		김성진과 윤혜영의 만남에 대한 김정일의 분노	현재
	2절	부조리한 서약서	현재
	3절	윤혜영, 김성진의 투신	현재

시집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와 수기가 주로 자기고백을 통해 사회를 주목하고 있다면, 총 4장 12절로 구성된 서사시집 『김정일의 마지막 여자』(부제: 이 서사시를 아름다운 윤혜영에게 바친다)는 전자와 상호텍스트성

의 토대 위에 김정일 정권의 부패와 부조리, 인민들의 가난한 삶 즉, 공동체적 서사를 통해 자기서사와 개성화 과정을 시도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시간적 구성으로는 '과거형'보다 '현재형'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그림자의 시적 형상화 문제에 대해 논지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다.

## II. 그림자(Shadow)의 시적 형상화

인간의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용에 따르면 '그림자'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숨기고 싶은 무의식의 한 부분이며 인내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상상'<sup>6)</sup>을 통해 긍정적인 기운으로 치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만일 그림자를 억압하고 방치한다면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고 부정적인 기운으로 전이되어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적극적 상상'을 통한 예술 활동이다. 이러한 관점은 문학 특히, 시창작을 통해 억압된 그림자를 발산하고 수렴할 가능성에 대해 시사한다. 우선 시는 언어를 매개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시어는 상징적이며 함축적이다. 또한 은유나 이미지는 무의식 속의 그림자를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의식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에서 사용되는 은유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이나 생각을 사전적 의미가 아닌 개인적·개성적 의미로 치환할 수 있다.

---

6) 적극적 상상(aktive Imagination)이라는 용어는 1916년 『초월적 기능』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것은 무의식과의 대화이다. 예술작품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작품성이나 미적실천과는 거리가 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무의식을 바라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깥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다음 의식화하고 재구성하여 개성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시는 그림자 형상화의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보이는데 하나는 ‘탈북체험의 그림자 형상화’이고 나머지 하나는 ‘정착 의지로서 그림자 형상화’이다. 또한 이러한 구분과 더불어 ‘고발형식’과 ‘자기 고백형식’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탈북체험의 그림자 형상화’는 탈북체험이 남긴 트라우마 즉, 타나토스적 성격이 강한 그림자로서 이를 의식화하여 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착 의지로서 그림자 형상화’는 에로스적 성격이 강하며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의지와 희망을 형상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것은 둘다 무의식 속에 잠재된 형태로 의식과 대립상태에 놓여 있다. 정신적으로 큰 사고를 겪고 나면 정신적인 후유증이 남는다. 이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다. 생존자들도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나만 살아남았다는 자책이나 미안함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우울해지는 현상을 ‘생존자증후군’이라고 한다. 이것은 무의식 즉, 그림자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그림자가 북한이탈주민의 시(장진성의 시를 중심으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2-1장과 2-2장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1. 탈북체험의 그림자 형상화 문제

탈북체험은 시간상으로 ‘탈북 전-탈북 탈북 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현실(외적·가시적)공간과 심적(내적·비가시적)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서적 측면에서 작품에 나타나는 일차적 정서<sup>7)</sup>는 공

7) 심리학에서는 정서와 기분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정서와 기분을 구분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 몇 가지 살펴보자면 ‘정서’는 대상지향적인 반응이므로 무엇에 대해서 혹은 그 무엇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것이다. 반면 ‘기분’은 이러한 대상지향적인 성격이 희박하다. 짜증나는 기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대상으로 인해 화가 나거나

포, 분노, 슬픔, 기대, 놀람, 기쁨, 혐오, 경멸, 죄책감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시를 통해 표출되는 정서는 은유와 상징, 이미지와 리듬 등의 요소를 통해 재구성하고 의식화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시집에서 공통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내용은 크게 탈북 전후로 양분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탈북 당시의 정황이나 상황에 대한 내용은 드물다. 이것은 첫째, 스스로 감당하기 벅찬 개인적 무의식에 속한 '그림자'가 자기방어기제와 자기검열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탈북체험'이라는 트라우마의 중심을 가로질러 현실을 직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둘째, 장르적 특성상 운문은 산문에 비해 문장의 길이가 짧고 상징과 은유, 이미지와 리듬 등의 요소를 통해 주제를 집약한다는 점에서 거대서사를 담기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탈북 상황이나 정황을 글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제3자의 입장이거나 트라우마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난 상태에서 가능하다. 또한 장르적으로 산문에 적합하며 운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장편서사시가 아닌 경우에는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서를 바탕으로 개인적 무의식을 표현한 시 장르에서는 탈북자 스스로가 창작한 경우가 많은 반면에 연대기적 서사로 이루어진 소설 장르의 경우 제3자인 남한작가에 의해 창작되는 경우가 많다.

분석심리학에서 “움은 개인의 특수한 생활체험과 관련되고 개인의 성격

---

어떤 대상에 대해 화가 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속성의 차원에서도 정서와 기분은 차이가 있는데, 기분은 보다 오래 지속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정서는 비교적 쉽게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기분과 정서는 서로 대안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반면 감정은 정서와 그 의미에서 보다 구분이 모호할 뿐 아니라 호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학과 문학치료 문학비평의 영역에서는 정서를 예술치료를 비롯한 임상영역에서는 감정이라는 용어를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김지훈, 『정호승 시의 심리치료 활용 분석』, 2007,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상의 특성을 이루는 것들은 개인적 무의식이라고 하였다.”<sup>8)</sup> 탈북체험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정서는 대개 공포, 불안, 분노, 슬픔, 그리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가 개인적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주로 탈북 전과 후의 시점을 중심으로 고백과 고발의 형식으로 형상화 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장진성의 시집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와 『김정일의 마지막 여자』는 탈북체험의 그림자 형상화 문제를 깊이 있게 조명할 만한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는 초췌했다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  
그 종이를 목에 건 채  
어린 딸 옆에 세운 채  
시장에 서 있던 그 여인은

그는 병어리였다  
팔리는 딸애와  
팔고 있는 모성(母性)을 보며  
사람들이 던지는 저주에도  
땅바닥만 내려보던 그 여인은

그는 눈물도 없었다  
제 엄마가 죽을병에 걸렸다고  
고함치며 울음 터치며  
딸애가 치마폭에 안길 때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던 그 여인은

8) 이부영, 『마음의 구조와 기능』, 『분석심리학』, 일조각, 2011, p.84.

그는 감사할 줄도 몰랐다  
당신 딸이 아니라  
모성애를 산다며  
한 군인이 백 원을 쥐어주자  
그 돈 들고 어디론가 뛰어가던 그 여인은

그는 어머니였다  
딸을 판 백 원으로  
밀가루빵 사 들고 허둥지둥 달려와  
이별하는 딸애의 입술에 넣어주며  
-용서해라! 통곡하던 그 여인은

-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 전문

위의 시는 '사회 고발적 유형'에 속하는 작품으로 집단·공동체적 서사를 통해 현재 자신이 속한 사회와의 괴리감을 역설하고 개인적 무의식에 속한 '그림자'를 직시한다. 이러한 그림자의 저변에는 슬픔과 분노, 죄책감의 정서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사람들이 던지는 저주에도/땅바닥만 내려보던 그 여인은”에서 “그 여인은” 딸을 백 원에 파는 모성이다. 이러한 모성은 옹의 입장에서 “변화무쌍하며 보편적인 모성성과는 차이가 있는 성질의 것”<sup>9)</sup>이다. 이것은 그림자의 은유적 표현이며 ‘낮설게 하기’ 기법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미 있는 전체로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딸을 파는 매정함과 부조리를 모성이라 부를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우선 시어의 반복과 차이를 적극 활용한 “그 여인은”이라는 구절에 주목해 보자. 각 연에서 각운처럼 반복되어 리듬감을 형성하는 “그 여인”의

9) C.G.옹, C.G.옹 저작 번역위원회,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옹 기본저작집2』, 한국음연구원, 2003, pp.202-203.

정체는 마지막 연을 읽기 전까지 유보된다. 마지막 연 “그는 어머니였다/ 딸을 판 백 원으로/밀가루빵 사 들고 허둥지둥 달려와/이별하는 딸애의 입술에 넣어주며/-용서해라! 통곡하던 그 여인은”에서 “그”라는 대명사는 “그”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부정적 모성의 원형을 표상화함으로써 슬픔과 동시에 분노를 느끼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마지막 연에서 슬픔과 분노의 근원인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그림자가 딸에 대한 사랑 즉, 긍정적 모성성의 원형으로 ‘자리바꿈’<sup>10)</sup>을 함으로써 그림자가 지닌 정서가 슬픔과 분노에서 ‘죄책감’으로 넘어가는 지점을 형성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장진성 시의 특징은 고발문학이 전형적으로 침착할 수 있는 슬픔과 분노, 죄책감의 정서를 시적 울림을 통해 승화시키고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시와 수기를 두고 보았을 때 텍스트의 구체적 정황이나 사실로서의 전달 가치는 수기가 시를 보충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수기의 보충으로 인해 시가 가지는 상상력이나 정서적 공감대 그리고 진실로서의 가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장진성 시의 특징적인 정서적 공감대 형성의 저변에는 특정지역과 역사를 뛰어넘는 인간사를 아우르는 철학적 명제가 있다는 것에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장진성의 작품에서 특히 주목할 정서는 ‘죄책감’<sup>11)</sup>이다. 작품의 성격이 고발이든 고백이든 ‘죄책감’은 공통적으로 포착되는 정서이기 때문이다. 이

10) 문학 혹은 문학치료에서 ‘자리바꿈’은 정신분석학의 ‘치환’과 동일한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죄책감이나 슬픔, 불안 등의 정서가 은유를 통해 새로운 정서로 변이되는 기법적 특성으로도 이해가 가능하다.

11) 일반적으로 죄책감(guilt)은 사회적 규범이나 양심 혹은 자신이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깨닫는 인지적·정서적 경험이다. 사회적 규범이나 질서에서 벗어날 때 느끼는 객관적 죄책감은 주로 인간관계나 개인과 집단, 그리고 개인성과 보편성 사이의 긴장과 갈등에서 발생한다. 반면에 주관적 죄책감은 자신을 부적절한 존재, 뭔가 결핍된 존재 혹은 초라한 존재나 바참한 존재라고 느끼는 감정에서 비롯된다. 박종수, 『죄책감과 수치심』, 『응심리학과 정서』, 학지사, 2013, p.426.

러한 죄책감의 유형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죄책감과 집단적 죄책감, 실제적 죄책감과 상상적 죄책감, 생존자(선택 받은 자)의 죄책감, 페르소나에 대한 죄책감 등이 그것이다. 위에 제시된 시와 수기에서도 작가의 개인적 죄책감과 집단적 죄책감이 동시에 나타난다.<sup>12)</sup> 가령 “그는 병어리였다/팔리는 딸애와/팔고 있는 모성(母性)을 보며 /사람들이 던지는 저주에도/땅바닥만 내려보던 그 여인은”에서 집단적 죄책감을 배경으로 그림자를 형상화하는 부분과 “용서해라! 그 여인은”에서 처럼 다른 연과 달리 개인의 감정과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실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놓친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전제된 개인적 죄책감도 동시에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슬픔과 분노로 인한 고발형식의 시에서 생존자의 죄책감과 페르소나에 대한 죄책감도 일어나는데 이것은 대상에 대한 고발이 탈북체험의 구체적 형상화로서 그림자가 가시화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장진성의 시집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는 수기 『시를 품고江을 넘다』에서 구체적인 서사로 보완된다. 수기에는 대표작 「사형수」,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 「출석부」,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는 건」, 「탈북자, 우리는」을 중심으로 시를 쓰게 된 배경이 기록되어 있으며, 시집에 수록되지 않은 신작 「애들아! 이제는 너희들의 대한민국이다」이 실려 있다.

그런데 그 밤엔 우리 눈에도 사람이 가진 목숨의 한계란 것이 저만치 보이는 듯싶었다. 당장 이 돈마저 없어 하루 이틀 굶다보면... 그 결말의 두려움이 육신을 파고들며 나른해지기까지 했다. 문득 나를 울렸던 북한 돈 백 원 생각이 났다. 중국 돈에 비해 환율차이가 극심한 북한화폐는 휴지나 다름없다. 그

12) 개인적 죄책감과 집단적 죄책감은 양자 모두 죄책감이라는 공통분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자가 개인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라면, 후자는 개인적 세계관을 떠나 집단 즉 사회의 법률이나 규율 등의 강제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를 지닌 것이 특징이다.

런데도 그 하찮은 백 원에 한 모녀의 슬픈 운명이 담겨야만 했던 눈물겨운 사연이었다. 1999년 평양시 동대원구역 시장에서 내가 그 비극의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썼던 시가 바로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이다.

- 장진성, 수기 『詩를 품고江을 넘다』중, p.81-82.

앞서 제시한 시와 상호텍스트성을 가지는 수기의 일부이다. 시에 비해 수기에는 탈북 전-탈북-탈북 후의 시간과 정황이 자세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수기의 장르적 특성상 그림자에 대한 연대기적 형상화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수기에서는 시적 정서나 긴장감이 줄글을 통해 밀도 있게 서술된다.

그 다음으로 간절했던 것은 연결시장 근처에서 보았던 만두였다. 비록 먹어보진 못했지만 아마 맛보았다면 그게 최고였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갑자기 뱃짚이라도 보이면 막 씹어 먹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자 불쑥 시집 속의 시 하나가 생각났다. 북한에 있을 때 거리에서 동냥하던 어린 여자애가 내게 들려줬던 이야기였다.

- 장진성, 수기 『詩를 품고江을 넘다』중, pp.111-112.

위와 같이 수기에서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수기가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를 회상하고, 시는 회상의 실제 시점(체험적 시간) 후에 그리고 수기는 그 다음에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체험→시→수기 순으로 쓰인 것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수기보다 시가 먼저 창작되었다는 점 혹은 먼저 출판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탈북이라는 특수한 체험의 형상화 방법에 반응하는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는 수기보다 은유적이다. 은유는 사고의 확장, 상상력의 확장에 기여한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시에서 사용되는 은유는 억압된 기제에 대한 보상 기제의 활성화에 유리하다. 즉, 그림자를 직시하고 표현할 때 사용되는 은유는 직유에 비해 간접적 즉, 안정성을 담보한 보상 기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장진성의 시에 사용된 은유 이외에도 리듬의 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에서 사용되는 리듬의 회복은 정서의 회복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김소월의 7·5조는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시적 화자의 정서까지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장진성의 시는 급박한 상황이라도 시의 리듬에 있어서는 비교적 안정된 운율을 유지하는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꾸준한 습작과 퇴고에 따른 성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개성화의 관점에서 그림자 형상화의 성공 즉, '탈북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로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위에 제시한 수기의 내용이 담긴 시를 살펴 보자.

석 달 전에 내 동생은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는 건  
따뜻한 옥수수라 했습니다

두 달 전에 내 동생은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는 건  
불에 구운 메뚜기라 했습니다

한 달 전에 내 동생은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는 건  
어제 밤 먹었던 꿈이라 했습니다

지금 내 동생이 살아있다면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는 건

이 달에는 이 달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 장진성,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는 건』, 『시를 품고 江을 넘다』부분  
pp.81-82.

장진성 시의 안정적 리듬감은 시적 정서를 조절하고 가독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 시적 울림 즉,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된다. 이러한 리듬적 특성과 더불어 시의 정서를 살펴보자. 식욕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에 하나다. 기본적 욕구조차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은 인간을 불안과 공포, 슬픔과 분노 극단적으로는 공격적 성향의 인간 유형으로 변형시킨다. 그러나 제시된 시는 이러한 일반적 논의를 비껴간다. 우리는 먼저 위의 시에서 ‘낮설게 하기’가 사용되었음에 주목해야한다. 각 연의 첫 행에 사용된 대구와 반복은 안정된 리듬감을 형성하고, 마지막 연 “지금 내 동생이 살아있다면”과 같은 가정법은 슬픔의 정서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낮설게 하기는 이러한 간극 메우기를 통해 정서를 표출하고 주제를 응집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작법이 가능한 배경은 무엇일까? 이것은 개성화 과정을 거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옥수수, 메뚜기, 꿈”은 삶과 죽음, 슬픔과 분노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언어를 통해 그림자를 의식화하고 표면화할 때 은유는 피하고 싶은 그림자를 표출함에 있어 직접적인 표현보다 심적 부담감이 훨씬 줄어든다. 또한, 이렇게 형상화한 그림자는 자기서사를 재구성하여 긍정적인 정서반응에 기여한다.

## II-2. 정착 의지로서 그림자 형상화 문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을 담은 작품에도 그림자는 존재한다. 여기서 그림자는 시간상으로는 탈북 후, 공간상<sup>13)</sup>으로는 대한민국의 영향을 받는다. 앞서 살펴 본 ‘탈북체험과 그림자 형상화 문제’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정착 의지와 더불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은 그림자 형상화 문제이다.

‘탈북 후’의 시점에서 그들의 시에 형상화된 그림자는 정서적 측면에서 탈북체험의 그림자 형상화의 주된 정서인 슬픔과 분노보다는 죄책감과 허무함, 그리움과 희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그림자는 ‘탈북 트라우마’<sup>14)</sup>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한반도의 ‘탈북 트라우마는’ 1950년 6·25 전쟁 이후 이산가족을 비롯해 최근 북한이탈주민에 이르기까지 지역과 세대를 가로지르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정착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의 부정적 속성인 지속성과 잠재성은 심리적 위축감과 불안을 야기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용에 따르면 그림자는 떨쳐내야 할 속성의 것만은 아니다. 다시 말해 살아 있는 동안 함께해야 할 인격체이다.

“그림자는 본래 의식에 가까운 개인적인 무의식의 내용이다. 그래서 그림자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될 때는 나와 비슷한 부류의, 나와 같은 성(性)의 대상에 투사되며 거기서 그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을 본다. 그런데

- 
- 13) 문학작품에서 공간은 ‘실제 공간’과 ‘심미적 공간’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자가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를 지칭한다면 후자는 정서를 통해 재구성되는 즉, 가상현실의 공간이며 사실보다는 진실을 추구하는 주제와 밀접한 개념의 것이다.
- 14) “탈북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북한 이탈’ 또는 ‘북한 탈출’이라는 뜻이죠. 북한에서 살다가 자발적이건 어쩔 수 없어서이건 북한 국민이기를 포기하고 북한을 위협적으로 벗어나 다른 나라에 살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박덕규, 이성희 편저, 『민족의 특수한 경험에서 전지구의 미래를 위한 포용으로』, 『민족의 특수한 경험에서 전지구의 미래를 위한 포용으로』, 2012, 푸른사상, p.13.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덧붙여 ‘남한(대한민국)으로’라는 방향성을 명시하고 ‘트라우마’라는 개념을 의학적으로 ‘외상(外傷)’, 심리학적으로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남기는 충격’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탈북 트라우마’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탈한 자가 가지는 외상, 정신적 충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용은 그림자라는 말을 때때로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에도 적용시킨다. 모든 원형상(原型像)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창조와 파괴의 양면이 있다고 생각한다.”<sup>15)</sup>

이러한 맥락에서 장진성의 작품에서 그림자는 ‘김정일 체제에 대한 슬픔과 분노’<sup>16)</sup>의 정서로 시작하여 그림자의 의식화 단계가 진전될수록 ‘죄책감’으로 표상화되기도 한다. 죄책감은 현재 자신이 속한 사회 현실과 그가 속했던 참담한 사회 현실과의 괴리감으로부터 일어난다. 또한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는 의식화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른 정서로 이동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곧 ‘개성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초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과 정서의 초월, 시간과 공간의 초월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된 초월이란 용어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구분하여 심리적 기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용은 ‘초월’이라는 용어에 대해 두 요소의 통합을 통하여 다른 관점으로 이행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두 대극의 대면은 그 긴장을 통해 살아 있는 제3의 것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아래 제시한 시를 통해 그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는 살인자  
스스로의 심판에  
이미 처형당한 몸

15) 이부영, 『마음의 세계와 그림자』, 『그림자』, 한길사, 2000, pp.42-43.

16) 장진성의 서사시집 『김정일의 마지막 여자』에서는 시간을 중심축으로 한 정서의 직접적 표출이 특징이다. 이는 ‘그림자 형상화’에 있어 초기단계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그림자 혹은 원형으로서 그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 형상화의 후기단계로 갈수록 개인은 그것으로부터 초월한다.

출근할 때

눈물밖에 가진 게 없어  
동냥손도 포기한 사람 앞을  
악당처럼 묵묵히 지나쳤다  
하여 퇴근할 땐  
그 사람은 죽어있었으니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도 얼마나 죽었는지 모른다  
이 골목 저 골목 매일매일  
몇 백인지 몇 천인지 셀 수 없다

오 밥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 땅에  
살아서 마주 볼 양심이 어디 있으랴  
아침이여 나를 사형해다오  
밤이여 나를 물어다오

- 「나는 살인자(나는 고난의 행군 시기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거리에 누워있는 시체들 옆을 지나곤 했다)」 전문

위의 시에서 사용된 “나는 살인자”라는 은유는 ‘주체지향적’이면서 동시에 ‘대상지향적’ 경향을 띤다. 고난의 행군 시기, 밥벌이를 위해 출근길에 “나”가 만난 것은 “눈물밖에 가진 게 없어 동냥손도 포기한 사람.” 즉, 시체들이다. “나(산 자)”와 “시체들(죽은 자)”은 치환은유 중 유사은유<sup>17)</sup>로 구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체와 대상의 구분은 대상의 사라짐(죽음)으로

17) “유사은유(類似隱喻)란 본의와 매체가 1:1 유사성을 축으로 결합하면서 공분모를 드러내는 양식으로서 기존의 ‘치환은유’를 좀 더 세분화하기 위해 새롭게 명명한 용어이다.” 강희안, 「언어를 창조하는 은유」, 『새로운 현대시론』, 천년의 시작, 2012, p.138.

인해 구분이 불가능함을 암시하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주체가 대상으로부터 느끼는 감정이나 정서는 주체와 대상의 초월적 기능을 전제한다. “오 밥이/사람을 잡아먹은 이 땅에/살아서 마주 볼 양심이 어디 있으랴.”에서처럼 대상의 사라짐은 곧 주체의 ‘죄책감’으로 남는다. 이러한 죄책감은 “아침이여 나를 사형해다오/밤이여 나를 묻어다오.”같이 그것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고자 하는 자괴감으로 표상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자괴감은 자기부정과는 다르다. 이것은 자기반성과 성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몇 년 세월 살아도  
 몇 년 세월 계속되는  
 생시와 꿈이 다른  
 우리 몸의 분단

언제면 오려나  
 꿈꾸면 악몽인  
 북한이 지워지고  
 생시도 서울  
 꿈도 서울인 그 날이

-『꿈에서도 바라는 꿈』부분,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 pp.153-154.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꿈에서도 바라는 꿈’은 다름 아닌 ‘통일’이다. ‘통일’이라는 시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시적 정황을 통해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자기서사의 축에서 ‘선택’과 ‘변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시적 주체가 바라는 것은 ‘돌아감’도 ‘멈춤’도 아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선택과 변화를 통해 자기서사 즉, 개성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탈북 전과는 현저하게 다른 환경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언제면 오려나/꿈꾸면 악몽인/북한이 지워지고/생시도 서울/꿈도 서울인 그 날이'에서 사용된 '북한'이라는 지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리적 공간을 넘어 심미적 공간으로서 그 위치와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즉, 시적 공간으로서 그 내포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과 대립적으로 사용된 시어 '서울'만 봐도 위의 시에서 사용된 지명은 지리학적 개념보다는 사회학적 개념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성화의 과정에서 '정착 의지'와 '희망' 등의 긍정적 정서로 전이되어 형상화되기도 한다.

이 소금처럼 살리라  
한 알을 깨물어도  
바다가 얼마나  
짠가를 알 수 있게

-『소금』,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 pp.156-157.

위에 제시된 시는 앞서 살펴보았던 시들과는 달리 '탈북 트라우마'를 직접적으로 찾아보기는 힘들다. 다시 말해 개성화 과정의 관점에서 '그림자'의 기능이 약화되고 시의 정서적 측면에서도 불안보다는 안정감을 되찾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앞서 살펴보았던 일련의 과정들 즉, 개성화 과정으로서 적극적 상상(명상)이 '그림자'를 또 다른 감정과 정서로, 더 나아가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탈북자  
우리는 먼저 온 미래

언젠가 오고야 말 통일을  
미리 가져온 현재

-『탈북자, 우리는, 『시를 품고江을 넘다』, p.197.

한강의 기적은  
신이 준 선물이 아니다  
가난할 땐 태어나선 안 될 너희들을 위해  
가난을 이긴 너희 어르신들의 기적이다  
너희에게 선물한 그들의 대한민국이다

이제는 너희들의 몫이다  
지금도 다 못 준 미안함에  
남은 세월 주름 깊은 그 세대 앞에  
그리고 오늘을 추억할 너희 후손들 앞에  
한 세대의 양심과 자부로 새롭게 써야 할  
애들아! 이제는 너희들의 대한민국이다

-『애들아! 이제는 너희들의 대한민국이다』,  
『시를 품고江을 넘다』, p.202.

위에 제시된 두 편의 시는 수기에 실린 작품이다. 수기에 실린 대부분의 시가 시집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에 수록되어 있지만, 위에 제시된 『애들아! 이제는 너희들의 대한민국이다』는 수기에만 실린 유일한 작품이다. 또한 시의 제목에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명이 전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애들(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쓰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시적 주체의 ‘자기 정체성 확립’이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탈북자, 우리는』은 시적 기법으로 도치법, 경향적으로 대상지향적 경향의 시를 쓸 만

큼 안정된 정서로 희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것은 그림자의 사라짐은 아니지만, 긍정적 변화로 보아도 무관하다.

### Ⅲ. 문학적 형상화 문제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장진성 시의 특징으로는 '정체성 찾기'로서의 주제적 측면이 부각된다는 점, 기존의 이념적·사상적 대립보다는 미적 실천에 있어서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고발문학이 전형적으로 침착할 수 있는 슬픔과 분노의 정서를 시적 울림을 통해 승화시키고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이 문학성을 돋보이게 함을 확인했다.

또한, 장진성의 시와 수기를 두고 보았을 때 텍스트의 구체적 정황이나 사실로서의 전달 가치는 수기가 시를 보충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수기의 보충으로 인해 시가 가지는 상상력이나 정서적 공감대 그리고 진실로서의 한계점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장진성 시의 특징적인 정서적 공감대 형성의 저변에는 특정지역과 역사를 뛰어넘는 인간사를 아우르는 철학적 명제가 뒷받침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체성 찾기' 즉 개성화 과정은 구체적인 역사적·시대적·지리적 특이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고 개진하기 위한 미적 실천의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시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새로운 담론으로서도 그 의미와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장진성의 시는 '개성화 과정'을 미적 실천으로 이어가는 좋은 예로 제시되었다. 그의 시는 '자기 고백'과 '고발'의 유형 모두를 취하면서, 전자가 범하기 쉬운 자아도취라든지 후자가 침착할 수 있는 사실로서의 문학에만 그치지 않고 시적 울림과 정서적 공감대를 포함한 범지역적, 범체제적 주제를 진정성을 바탕

으로 형상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창작되고 출판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학성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그것은 '개성화 과정'으로서의 시창작이 그들의 현실과 닮아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시와 삶이 미학적 진실보다는 정서적 사실을 토로하는 장으로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진실로서의 문학 더 나아가 정착으로서의 문학이 된다면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담론과 양질의 시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그들의 작품이 온전한 정착으로서의 의지와 희망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장진성,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 조갑제닷컴, 2008.  
\_\_\_\_\_, 『김정일의 마지막 여자』, 강남지성사, 2009.  
\_\_\_\_\_, 『시를 품고江을 넘다』, 조갑제닷컴, 2011.

### 2. 논문 및 단행본

- 강희안, 『새로운 현대시론』, 천년의시작, 2012.  
김대호, 『별거벗은 시의 고백』, 리빙북스, 2003.  
김성민, 『고향의 노래는 늘 슬픈가』, 다시, 2004.  
김옥애, 『죽사발소동』, 삼우사, 2005.  
김지훈, 『정호승 시의 심리치료 활용 분석』, 단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7.  
박덕규·이성희 편저, 『탈북 디아스포라』, 푸른사상, 2012.  
박중수, 『응 심리학과 정서』, 학지사, 2013.  
이부영, 『그림자』, 한길사, 2006.  
\_\_\_\_\_, 『분석심리학』, 일조각, 2013.  
C.G. 응 저작 번역위원회, 『응 기본저작집2』, 한국응연구원, 2003.  
장 벨맹-노엘(최애영 외 옮김), 『문학 텍스트의 정신분석』, 東文選, 2001.

**Abstract**

The imagery issue of 'shadow' in North Korean refugees' poem  
- based on Chang Jin Sung's poetical work and memoir -

Park, Duck-Gyu · Kim, Ji-Hun

This thesis aims to view the issue of shadow imagery in North Korean refugees poem. Recently, artistic movements related with North Korean refugees are noticeable. As for visual genre such as drama or movie, it is commonly being used as the work's main character or subject matter. Also, as for pure art such as literature, dance, music and art performance, there are some cases when North Korean refugees become the person in action. Considering the medium characteristics, drama, movie and talk show programs are easy to access. On the other hand, pure art including literature are rather harder to encounter.

It is after year 2000 when North Korean refugees writings such as poems or essays has widely spread in South Korea. In the first chapter, with the title of poem making as the individuation process, we looked over the general flow of poem works published after 2000. The common sentiment throughout their works were sadness, anger, longing and hope from the escape from north korea.

Especially, in the text of Jang Jin Sung who published two poem books and essay expressed intensively the sorrow and anger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chapter 2, with such in mind the subject was the poem imagery of shadow and based on Chang Jin Sung's work with strong narrative text we looked at the shadow, in other words, the aspect of sadness and anger with the sub-theme 'issue of shadow imagery of escaping' and 'issue of shadow imagery as the will of settlement' In poems which create humans emotions into words, the issue of 'shadow imagery' is sensitive and important subject. The reason is that it is not easy to reveal the reality of one's wound and the group's completely. In that text, comparing with direct talking, poem

can be expressed symbolically and metaphorically which is much safe and carries the merit of being able to express oneself. The sorrow and anger lying in Jang Jin Sung's has the characteristics mentioned earlier and in the context had philosophical subject that overwhelmed such emotions. The implication the poem has the function of increasing the reader's imagination but when it came to analyzing specific situation and the causal relationship we have come to meet some difficulties. We predict that it might be a counterevidence that poem making is much like their actual lives as a individuation process. The group trauma that North Korean refugees went through is not something that disappears or forgotten. The reason is because the shadow in unconsciousness constantly follows the person when being alive. This thesis wishes their works be settled as a meaning of will and hope and aims to be used as the nation's basis data in preparing the unification.

Key Word : North Korean refugees, shadow, escaping experience from North Korea, will of settlement, individuation

박덕규

소속 :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주소 : (330-714)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예술대학 D동 306호

전화번호 : 041-550-3774 / 010-9094-5641

전자우편 : qfiction@hanmail.net

김지훈

소속 :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연구전담 조교수

주소 : (330-714)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D동 303호

전화번호 : 041-550-3776 / 010-6536-0619

전자우편 : poet0619@hanmail.net

<p>이 논문은 2014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4년 7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7월 25일 게재 확정됨.</p>
--

